

전남

곡성 멜론, 세계적인 입맛 잡았다



지난해 22억 매출 이어 올 日·대만에 200t 수출

섬진강 가차마을로 유명한 곡성군의 특산물 멜론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곡성멜론 6t이 '가차타고 멜론마을'이란 브랜드로 일본·대만으로 첫 수출길에 오른 이후 연말까지 계약된 수출 물량이 200t에 달한다.

곡성멜론이 수출 첫해부터 대박을 터트리는 이유는 섬진강 주변에 맑고 깨끗한 공기와 섭씨 13도의 큰 일교차, 비옥한 토양 등 최적의 재배환경에서 자라 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입맛이 까다로운 일본과 대만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곡성멜론은 개별농가나 작목반 중심의 소규모 출하, 품종 난립 등으로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2008년 전남도가 지역 농산물의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클러스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곡성멜론 명품화'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곡성지역 200여 멜론 재배농가가 참여해 곡성멜론주식회사를 설립한후 지금까지 50여명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문 CEO 영입, 공동선별장, 비교과 당도 측정 선별라인,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갖춘 종합 유통센터를 설치, 공동생산 및 공동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품종 난립으로 품질이 저하돼 있는 곡성멜론의 명품화를 위해 우수 품종 선별 육성, 휴 살리기, 명품멜론 생산기법 표준화사업을 실시해 품질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고 표준화된 멜론의 공동생산, 공동출하로 전국 주요 백화점 및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도 곡성멜론이 프리미엄급 명품멜론으로 자리잡아 2009년 22억원의 매출과 19평

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 날씨 영향으로 멜론 수확이 전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으나 수출 및 백화점 직판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2010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영주 전남도 농업식품품장은 "그동안 지역 농산물이 개별농가나 작목반 중심의 소규모 출하로 제값을 받지 못했으나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특화작목을 규모화·기업화해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강진 봉옥' 겨울 지난 뒤 만나요 29일 강진군 칠랑면 단월리 주민들이 흥시와 굿감용으로 쓰이는 감품종 '봉옥'을 수확하고 있다. '봉옥'은 저온 저장시설에서 겨울을 난 뒤 출하된다. <강진군 제공>

장성 검정식품 수도권서 '인기몰이'

서리태콩·참깨 등 25t 판매 1억5천만원 수익

기능성 검정식품이 수도권에서 큰 인기를 끌며 장성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장성군과 장성농협에 따르면 올해 서리태콩, 쥐눈이콩, 찰흑미, 검정찰깨, 들깨 등 기능성 검정식품 25t을 판매했다. 장성농협은 최근 서울

남산타워와 아파트 직판행사를 비롯해 과천시 발달중 주공4단지 아파트 주민과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등 판매활동을 전개, 호평을 받았다. 판매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문 교류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완도수산물교류회에서도 5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군은 검정식품이 도시소비자의 열린 호응에 따라 재배면적을 12ha에서 20ha로 확대하고는 대체작목으로 검정콩과 유유지 활용할 농로 재배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검정식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포장개선을 비롯해 무부, 정국장, 된장 등 가공식품을 만들고, 재배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웰빙 건강식품 생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콩 무농약 재배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 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이끄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특새 특화작목으로 실시한 기능성 검정식품 사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 유통, 판매를 겸한 6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장만채 교육감, 완도서 학부모 간담회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최근 완도 지역을 방문, 오지 섬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장재익)은 최근 완도수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 교육감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교사를 존중하



고 교권확립에 앞장설 때 학생들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화흥초등학교와 완도초등학교, 완도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완도수산물교류회에서도 5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시민의 힘으로

여서동 일대서 봉사활동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봉사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수시 산림조합과 여수시 조경협회, 사회적 기업인 '송정 인더스트리' 등 박람회준비위 소속 도시가꾸기 분과 회원들은 지난 27일 여서동과 문수동 일대에서 가로수 주변 물고기 및 쓰레기줍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로수와 지 피식물(흙을 낚게 덮는 모든식물)의 생장을 돕고 아름다운 환경조

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여수조경협회 최성남 회장은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봉사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시민봉사활동을 계기로 시민들과 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000억 /보증금100억 /월세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95억 /보증금38억 /월세2,600만원 월차12억) ■토지 164평 건물 538평 (매가132억 /보증금5억 /월세2,000만원 이상)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죽동 ,생산농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임대중건벤선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15,818㎡(4,784평)전용 되어있음,건축물637.46㎡(192.83평), 현재 쉼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접,21914㎡(6,629평) 매매가22억

GG경매 컨설팅(주)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provided by GG Auction Consulting Co., Ltd. Includes contact info: 대표이사 노천구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Services include: ▶아파트, ▶상가주택, ▶주택, ▶토지(전,답,임야,대지), ▶임몰/빌라/다세대/오피스텔.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조성

여수시는 30일 디오션리조트 거문도홀에서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탄소 중립도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시에서 추진하는 탄소배출량 상쇄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설명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에 대해 기업과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방안(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팀장) ▲여수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전남대 서성규 교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산소연수 기술(한국기계연구원 안국영 박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또 29~30일 이틀간 (주)리전코리아-전남EIP사업단, (주)엔티스-전남EIP사업단 등 5개 업체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녹색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편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탄소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배출된 수위에 없는 탄소량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중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화순읍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간판 정비·5일시장 활성화 등 화순읍이 '희망의 지역,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화순읍사무소(읍장 정병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이나 간판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화순읍 5일시장 활성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내부위생 직원들의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읍민에게 제공하고, 마을방문은 물론 각 계각층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응징에 반영하고 있다. 마을 이장회의시 논의된 내용은 군에 건의해 군정의 올바른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이장회의에서는 ▲전통시장 위축의 원인과 문제점 ▲외국시장 및 국내시장의 성공사례 ▲화순군의 전통시장 개선노력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